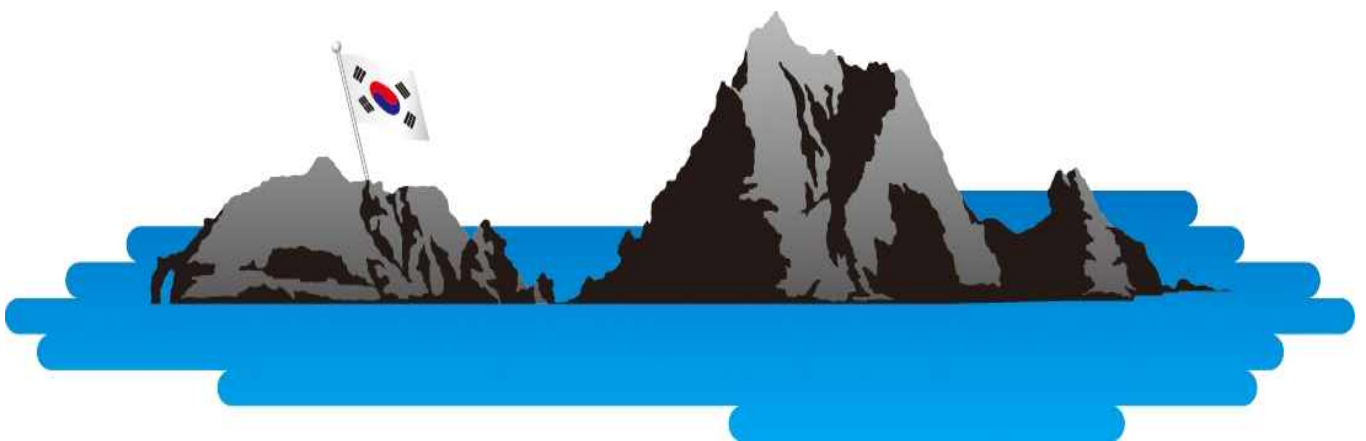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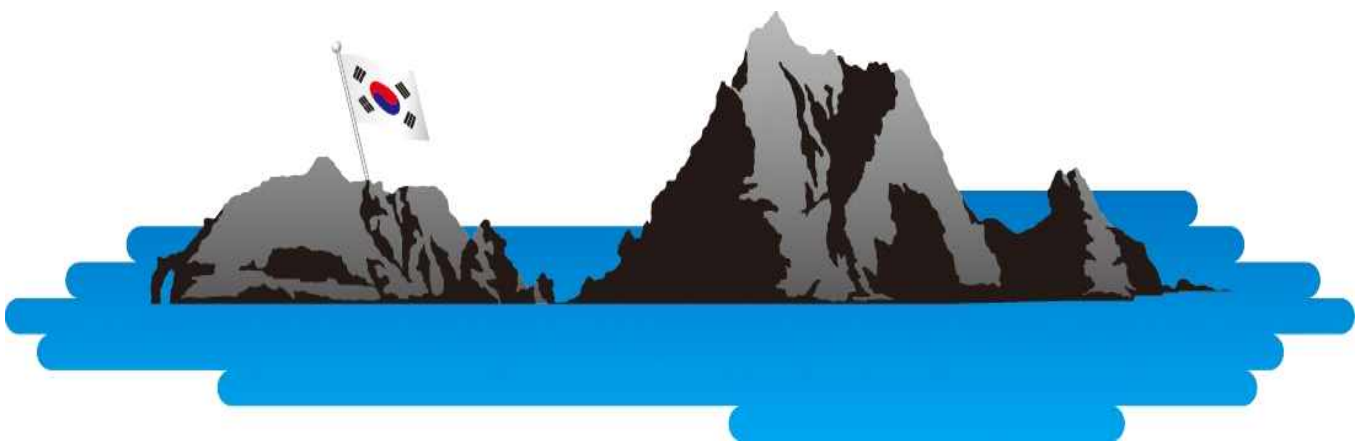
이화진선미

활동 자료집

- 독도체험관 체험활동보고서
- 독도 관련 서적 독후감
- 독도경비대에게 쓰는 편지



독도 체험관 체험활동보고서



체험학습 보고서[개인]

학 번	3학년 7반 9번	성 명	박민경
체험 일시 : 2018 년 5월 13일 11시			
장소 : 독도체험관			
체험내용			
<p>서대문역에 있는 독도체험관에 이화진선미와 함께 다녀왔다. 안내해주시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독도체험관을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독도의 생태계를 시작으로 환경, 역사까지 독도에 관해 기초적인 지식부터 심화적인 지식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쌓아갔다. 4D와 VR을 통해 독도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도 거울과 독도경비대에게 편지쓰기에 참여하였다. 독도체험관 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거울을 만들고 독도경비대에게 감사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었다.</p>			
느낀점			
<p>이번 독도 체험관 방문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독도체험관 청소년 자원봉사자에 지원하여 봉사를 했었다. 그때는 관리하는 입장이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독도체험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독도체험관을 체험하러 온 학생으로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공간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또한 문제를 풀면서 익히고 4D와 VR을 통해 생생한 독도를 직접 마주하며 독도에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도경비대에게도 감사 편지를 쓰고 기념 거울을 만듦으로 인해 독도가 그리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다.</p>			

체험학습 보고서[개인]

학 번	3 학년 7 반 2 번	성 명	권 원
체험 일시 : 2018 년 5 월 12 일			
장 소 : 독도체험관			
체험내용			
<p>이화 진선미 팀과 서대문 독도체험관에 방문했다. 독도체험관은 안내데스크부터 자연관, 역사관, 4D영상관, 야외정원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팀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역사관에 들어갔다. 역사관에서는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독도의 옛날 이름, 조선과 일본이 독도에 관해 기록한 자료들과 국제적인 입장 등을 알 수 있었다. 자연관에서는 커다란 독도 모형을 중심으로 독도의 기후와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4D체험관에서는 VR 기기를 사용해 독도를 직접 방문한 것처럼 관찰했다. 가이드의 설명이 끝나자 체험활동 학습지를 받았다. 각자 체험관 내부를 다시 둘러보며 학습지의 질문에 답하며 알게 된 내용을 복습했다. 학습지를 맞춰보고 핀 거울 만들기 체험을 했다. 마지막으로 독도에게 다 같이 편지를 썼다.</p>			
느낀점			
<p>체험관 내부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어서 감탄했다. 독도에 관한 자료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있어서 초등학생은 물론 고등학생도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독도체험관의 설명을 통해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자료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섬이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관에서는 생생한 그림과 모형을 볼 수 있어 독도의 생태에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독도의 기후와 그곳에 적응한 생물들에 관해 더 자세하게 조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인상 깊은 체험은 4D체험이었다. 움직이는 의자와 3D안경과 VR기기 체험은 정말로 독도에 간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p>			

체험학습 보고서[개인]

학 번	2학년 4반 10번	성 명	신유진
체험 일시 : 2018 년 5월 13일 11시			
장소 : 독도체험관			
체험내용			
<p>주말인데도 일찍 일어나서 권원 선배님, 박민경 선배님, 예진이, 수지랑 같이 독도 체험관에 갔다. 안내사 선생님께서 독도의 역사부터 알려주셨다. 독도에 사는 갈매기의 이름이 팽이 갈매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8살정도 되보이는 어린 꼬마친구들과 수업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참 귀여웠다. 1500년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독도는, 우산도라고 불렸었다. 독도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전라도 사람들을 독도를 돌이 많아 돌섬으로 불렀는데 사투리로 독.섬. 한자로 석도, 마지막에는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 독도가 보인다.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켜낸 어부. 안용복의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증명해야하는 이유도 더욱 확실해졌다. 독도 경비대 아저씨들께 다 같이 편지도 쓰고 독도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거울도 만들었다. 데스크에서 나누어주는 책자에 있는 퀴즈도 체험관 구서구석을 누비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갔다.</p>			
느낀점			
<p>이화 진선미가 아니었다면 나는 독도 체험관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독도체험관은 내가 생각한 곳보다 더 외지고 찾기 힘들고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었다. 광화문 같이 탁 트인 곳에다 두었으면 시민들이 좀 더 우리 독도를 의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독도에 대해 알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되는 생각이었고, 독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느꼈다. 같이 안내를 들은 초등학생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독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반성을 많이 했다. 나 말고 누군가가 독도에 대해 신경쓰고,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일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생각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나이이다.</p>			

체험학습 보고서[개인]

학 번	2학년 6반 8번	성 명	엄수지
체험 일시 : 2018 년 5월 13일 11시			
장소 : 독도체험관			
체험내용			
<p>독도체험관 방문.</p> <p>처음에는 큐레이터분의 설명을 들었다. 독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어떻게 불러왔는지,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의 근거, 독도의 지형, 살고있는 동식물 등에 대해서 들었는데 독도를 대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p> <p>두 번째로 독도와 관련된 그림으로 손거울 만들기를 하였다. 손거울의 종류에는 독도에 살았던 동물인 강치 그림과 독도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었다. 또한 독도경비대분들께 쓰는 힘을 주는 편지도 썼다.</p>			
느낀점			
<p>독도는 항상 언젠가 자세히 알아봐야지 하는 생각만 해왔고 실제로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독도의 역사나 지형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다. 또한 강치에 대해서도 전설처럼 들어보기만 하고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되고 손거울 만들기, 독도경비대 분들께 편지쓰기 등을 통해 내가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p>			

체험학습 보고서[개인]				
학 번	2학년	5반	12번	성 명 윤예진
체험 일시 :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9시				
장소 : 독도 체험관				
체험내용				
<p>독도체험관에는 역사관, 자연관, 4D영상관으로 되어 있었다.</p> <p>큐레이터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독도의 첫 등장부터 오늘날까지 역사를 전근대, 근대, 일제강점기, 해방 후로 나뉘어 독도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자연관에서는 1/20 독도 모형을 중심으로 독도에 대한 모든 것과 독도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4D 체험관에서 VR을 쓰고 독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독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독도 책안에 있는 퀴즈를 체험관 안에를 돌아다니면서 풀기도 했다. 그 퀴즈를 다 풀고 안내데스크에 보여드렸더니 독도체험관 볼펜을 받았다. 나는 다양한 방법들로 독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p>				
느낀점				
<p>나는 독도체험관에서 독도가 그려진 거울을 만들었다. 독도라고 영어로 적어 놓아서 외국인이 보았을 때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독도 체험관을 방문함으로써 “독도에 대해 많이 무지하진 않았나” 라며 나 자신을 회고해보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독도도 방문해 보고 싶다.</p> <p>사람들이 독도 체험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p> <p>그래서 홍보하기 위해 내 SNS에 독도 체험관 사진과 내가 활동한 것들을 찍어 올리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체험관에 방문해서 독도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p>				

독도 관련 서적 독후감



독후감

(3)학년 (7)반 (9)번 이름(박민경)

제 목	독도의 자연	지 은 이	울릉도 독도연구소
읽은 기간	2018년 7월 16일	출 판 사	경북대학교 출판부

즐거리

1.독도 화산의 지질- 암석, 광물, 연령, 그리고 생성원인

울릉도는 약 9천년 전 까지 화산활동이 있었고 독도는 약 200년 전 화산활동이 종료되면서 만들어진 해양 화산섬이다. 독도 화산체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층들로 천장굴, 독립군 바위 같은 해식 동굴이 만들어졌다. 독도와 울릉도의 화산암류는 알칼리 현무암, 조면 현무암, 조면 안산암 및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2.독도의 지형 및 경관

주요지형= 화산지형, 해안지형, 풍화지형, 지형경관=닭바위, 부채바위, 솟돌바위

동도=자갈해안, 탱크바위, 독립문바위, 얼굴바위, 천장굴 등,

서도=삼형제바위, 솟대바위 등

3.독도의 식생(식생이란 어떤 지역에서 생육하는 식물의 집단)

독도는 우리나라의 어떤 섬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전형적인 염풍충지

(염풍충지란? 심한 파도와 강한 바람이 바는 지역)

종류는 개밀, 참소리쟁이, 갯제비쑥, 군락, 참억새 국락, 땅채송화 군락 등이 있다.

4. '독도의 식물'

초본식물= 독도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한 식물- 땅채송화, 개밀, 술파랭이꽃, 초종용 등

5. 독도의 조류

매, 솔개, 흑비둘기, 등의 천연기념물과 대표적 조류종인 꿩이갈매기를 포함한 바다제비, 습새 등 기타 조류의 서식지이다.

느낀점

일본과 독도영유권 문제로 독도의 소중함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높아지고 있고 나 역시 독도 알리기 봉사를 하고 있다.

소중한 독도에 관심이 오로지 국제적 논란이 된 영토 문제로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일본(다케시마는 죽도를 뜻한다)...

지질학적으로 대나무가 자랄 수 없는 독도는 그들이 말하는 일본 땅이 아님을 반박할 수 있을 것 같다.

천연기념물 제 336호 독도, 동도와 서도의 자연적인 경관, 꿩이갈매기 등 아름다운 자연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독도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다.



독후감

(3)학년 (7)반 (2)번 이름(권 원)

제 목	하늘에서 본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영토	지 은 이	김윤배, 김성수
읽은 기간	2018년 7월 7일 ~ 7월 21일	출 판 사	지성사

줄거리

울릉도는 한반도에서 130.3km 떨어져 있다. 해양성 기후의 특성으로 일교차가 적으며, 눈과 비가 자주 내려 대부분의 날이 흐리다. 울릉도와 독도 해역은 대마난류와 한류수의 영향을 받고 독도 냉수성 소용돌이가 자주 발생한다. 수온이 꾸준히 증가하여 아열대화와 갯녹음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바다 밑의 독도는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훨씬 크며, 주변의 여러 해산은 진화과정을 뚜렷하게 보여주어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울릉도는 44개의 섬과 바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이다. 지형이 매우 가팔라서 바람에 따라 파도의 높이가 달라진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201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경제적으로는 해양 관광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이 발달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크게 증가하여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울릉도 연안에 서식하는 1,200여종 이상의 해양생물은 동해안보다 남해안에 가깝지만 제주도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졌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와 89개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동도에는 등대, 통신탑, 독도경비대 숙소, 기상청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다.

느낀점

독도에 대해 알려면 울릉도에 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울릉도의 곳곳에 역사 속 독도의 흔적을 볼 수 있었고, 울릉도 주변의 해양이 독도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울릉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웠다. 오징어 조업과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독도가 울릉도 보다 먼저 생겼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신기했다. 1947년에 일어난 독도 폭격사건 또한 처음 알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독도에서 반드시 봐야하는 시설물 소개를 읽고 국토지리정보원의 대한민국 국가기준점표식과 국립해양조사원의 대한민국 영해기점 표식을 직접 보고 싶다고 느꼈다. 일본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도의 환경과 자원을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곳이라고 느꼈다. 이 책을 통해 독도와 울릉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다. 역사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섬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다.



독후감

(2)학년 (4)반 (10)번 이름(신유진)

제 목	대한민국 독도교과서	지 은 이	호사카유지
읽은 기간	2018년 7월 6일	출 판 사	휴이넴

줄거리

이화 진선미 팀으로 활동하면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독도와 연관된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기로 하였다. 학교 도서관에는 생각한 것보다 독도와 관련된 도서들이 많지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 독도 교과서”라는 책을 골랐는데, 이 책을 고를 가장 큰 이유는 저자가 일본인이라는 점 이였다. 독도에 대한 내용으로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어 각국의 입장을 잘 살펴볼 수 있었다. 독도의 발견, 신라와 고려, 조선때의 독도, 민간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도를 지키는데 힘을 쓴 유명한 안용복의 이야기, 지도로 보는 독도의 진짜 주인,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의 이야기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들, 불법으로 한국 영토인 독도를 몰래 빼앗으려했던 일본, 광복 이후 지금까지의 독도, 시간의 흐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글을 보니 독도에 대해 더욱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느낀점

독도에 대해 알면 알게 될수록, 안용복이 그리 인상깊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독도의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아가 자신의 밥줄을 위협해서일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서였을까. 아마 후자가 아니였을까 싶다. 항상 이런 훌륭한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면, “내가 저 상황에 놓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의문을 지우지 못한다. 만약 내가 안용복이었다면 일본에 잡혀가면서까지 독도를 지키려고 애썼을까. 나는 불 같은 성격이라 아마 목소리를 내었을 것 같다. 앞으로 교내에서도 교외에서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독후감

(2)학년 (6)반 (8)번 이름(엄수지)

제 목	청소년을 위한 독도야 말해줘!	지 은 이	안재영
읽 은 기 간	6월 25일	출 판 사	책과나무

줄거리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진 섬이다. 독도는 화산성 해산으로 동도와 서도가 있다.

770여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갯이갈매기가 가장 많다. 또한 해저자원으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 독도의 가치는 한층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일본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고 있다.

삼국사기(1145)에 처음으로 독도를 기록했으며, 팔도총도(1530)에는 최초로 독도를 그려 넣었다. 그에 비해 일본은 1748년에 처음 일본 측 지도에 독도를 등장시켰다. 게다가 조선여지도에는 우산도를 울릉도 왼쪽에 그려 넣고 송도를 멀리 떨어진 곳에 그려 넣는 등 독도를 울릉도에 속한 섬이라고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느낌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독도는 누구의 땅이냐고 물어보면 독도는 우리의 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왜 우리 땅인지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많지 않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 독도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현재의 독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독도는 그저 우리 땅이라고 기계처럼 외우기만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독도에 대해 알아가게 된 것 같다. 독도의 동식물들에 대해 알게 되고 왜 우리 땅인지 자세히 알게 된 것 같다.

독도가 멀게만 느껴지고 잘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다. 아직은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이 책을 잘 읽고 정독하여 남들에게 독도에 대해 잘 알려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독후감

(2)학년 (5)반 (12)번 이름(윤예진)

제 목	이번엔! 울릉도, 독도	지 은 이	장치은
읽 은 기 간	2018.07.01. ~ 07.10	출 판 사	넥서스B00kS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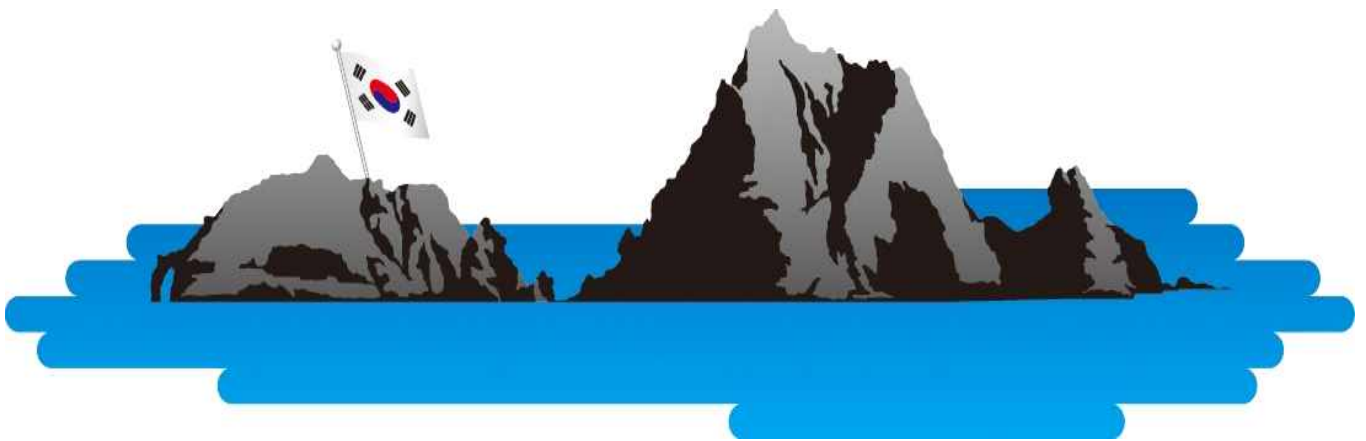
눈에 띄는 책표지와 귀여운 일러스트로 나의 관심을 끈 책
 [이번엔! 울릉도, 독도] 이 책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여행 정보가 담겨 있다.
 지루하게 글만 있는 책이 아닌 독도에 대한 여행 정보라니 새롭지 않은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독도에 가는 방법과 독도에 사는 생물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독도에는 일 년에 50~150번 밖에 갈 수 없다고 한다. 그만큼 밟기 힘든 땅이라는 것이다.
 파도가 센 날이면 출항조차도 하지 못하는 날도 많다고 한다.
 옆 장에는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일본에 수산업자에 의해 잡혀 간 강치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독도의 옛 이름이 ‘가지도’ 라고 한다.
 독도의 바위 중 하나인 큰 가제바위, 작은 가제 바위도 모두 강치를 따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책은 이렇게 독도에 관한 지식과 여행의 정보들을
 ‘독도는 울릉도, 제주도보다 형님이라던데?’,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를 아십니까? ‘라는
 재미있는 소재목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느낌점

‘다케시마’ 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편입시키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때문에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를 느끼는 요즘이다.
 독도에 대해 알아가고자 독도체험관에도 찾아가 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읽지만
 독도에 대해서 흥미롭고 유익하게 정리해 놓은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진이었다. 내가 직접 그 여행지에 가 본 것 같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촬영된 사진들을 보며 더욱 독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정보도 나와있다.
 울릉도의 베스트 코스, 테마 여행, 휴대용 여행지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다.
 더 신기했던 점은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쿠폰이 수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었다.
 ‘영원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고 외국인이 물어보았을 때, 당당히 근거를 내세우며 설명해 줄 수 있는
 독도지킴이가 될 때까지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독도 경비대에게 쓰는 편지



박민경 학생

독도 경비대분들께

맑은 하늘 독도의 앞바다를 보고 계시는 독도 경비대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3 박민경입니다.

‘이화 진선미’라는 독도 홍보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섬 독도를 열심히 멋지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에 들어가면 약 50일 후에 교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풍경만 바라보시니 많이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 덕분에 독도가 안전하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독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권 원 학생

독도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미디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독도에 관해 공부하면서 독도의 가치와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독도를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독도수비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독도에게 큰 보탬은 되지 못하지만, 작은 관심을 키워서

저도 언젠가 독도수비대분들처럼 멋지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험한 바람과 파도 사이에서 고생하시는 노력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신유진 학생

독도경비대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동북아시아재단에서 주최하는 전국 중·고등학생 독도체험 발표대회에 3학년 선배

님의 추천으로 2명의 같은 학년 친구들과 2명의 선배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독도에 대해 알만큼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독도 체험관에 방문한 후 제가 너무나도

무지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로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머리로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가슴으로만 대한민국을 사랑한

다고 했지 행동으로 보여준 적은 단 한번도 없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독도가 처음부터

독도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도 알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군인 분들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친구도 없고 사방이 바다인 곳에서 더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요. 독도 체험 관에서 독도vr 을 해봤는데 풍경이 참 예쁘길래 매일

날씨가 저렇게 좋냐고 여쭙보니까 보통은 저렇게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어요.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독도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말로만 머리로만 이 아닌 행

동으로 실천할거예요!

독도에 많은 격려와 응원의 편지가 오겠지만 제 편지를 보고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엄수지 학생

안녕하세요 경비대원님. 저는 이화미디어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독도에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독도는 우리땅이지. 지켜야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비대분들께서 왜 독도에 가 계시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경비대분들께 더 감사한 마음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한 데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윤예진 학생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병설미디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윤예진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소속된 동아리에서는 독도를 알리고 관심을 가지는데에 기여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 독도에 가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일 동안 바다만 보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독도 경비대인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이 나라에 챔피언입니다. 감사합니다.